

毛澤東 이후의 중국의 정치변화

——계승의 정치를 중심으로——

최명*

<目

次>

- | | |
|----------------|-----------------|
| I. 머리말 | III. 계승정치의 전개 |
| II. 몇가지 예비적 고찰 | 1. 華國鋒의 浮枕과 鄧小平 |
| 1. 개인화의 정치 | 2. 鄧과 三頭體제의 성립 |
| 2. 지도력의 분열 | 3. 胡耀邦과 趙紫陽의 失脚 |
| 3. 개혁정치의 공과 | IV. 불안정한 계승의 정치 |

I. 머리말

정권 수립후 40년이 지난 1989년, 중국공산당은 소위 스탈린주의적 정치체제의 개혁의 문제를 둘러싸고 문화혁명이후 최악의 정치적 위기를 맞았었다. 당의 개혁세력은 정치개혁이 중국의 경제발전을 위한 선행조건임을 지나치게 강조한 반면에, 당의 보수세력은 그것이 당의 정치권력독점을 파괴시킬 것이라는 이유아래 개혁에 반대했었다. 이것은 아주 단순한 도식이지만, 그러한 대립은 1989년 6월 天安門사건이라는 결과를 가져왔다.⁽¹⁾

天安門사건은 당고위지도부 내부의, 나아가 당과 군과의 분열을 노정시

* 서울대 정치학과 교수

(1) 1989년 6월 天安門사건의 여러 측면에 관하여는 예컨대, Lowell Dittmer, "The Tiananmen Massacre," *Problems of Communism*, Vol. 38 (September-October, 1989), pp.2-15; Andrew J. Nathan, "Chinese Democracy in 1989: Continuity and Change," *ibid.*, pp.16-29; Andrew G. Walder, "The Political Sociology of the Beijing Upheaval of 1989," *ibid.*, pp.30-40; June Tenfel Dreyer, "The People's Liberation Army and the Power Struggle of 1989," *ibid.*, pp.41-48; Huan Guocang, "The Events of Tiananmen Square," *Orbis*(Fall, 1989), pp.487-500; Nicholas D. Kristof, "China Update: How the Hardliners Won," *The New York Times Magazine* (November 12, 1989), pp.38-71; Alan P.L. Liu, "Aspects of Beijing's Crisis Management: The Tiananmen Square Demonstration," *Asian Survey*, Vol. 30 (May, 1990), pp.505-521 등을 참조할 것.

쳤으며, 일시적으로나마 중앙의 권력구조를 마비시켰었다. 시위군중에 대한 군의 발포는 당을 사회로부터 고립시켰고, 또 그 도덕적 정당성을 실추시켰을 뿐 아니라, 毛澤東사후에 있었던 것과 같은 계승의 위기를 가져왔다.

이 글은 毛澤東사후의 중국의 정치적 변화를 권력계승의 측면에서 분석함으로써, 중국의 정치체제가 갖는 몇가지 특질을 밝히려는 것이다. 물론 毛澤東 생전에도 권력계승의 문제가 중요하게 대두되지 아니한 것은 아니나, 毛澤東사후에 발생했던 일련의 권력계승의 문제는 권력이양의 합리적 절차를 결여하고 있는 중국의 사회주의 체제의 취약성을 더욱 현저하게 부각시켰다는 점에서 그 분석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Ⅱ. 몇가지 예비적 고찰

여기서 제시하는 몇가지 예비적 고찰은 권력계승의 정치와 직접 혹은 간접으로 연관된 이슈들이다. 어느 정치체계에서든지 지도자의 바뀜이 중요하지 않은 경우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지도자 계승에 대한 합리적 내지는 합법적인 절차가 결여된 中國에 있어서는 경쟁적 선거를 통해서 지도자가 바뀌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비교할 때 계승의 정치는 훨씬 복잡하고, 정치적 위기를 수반해왔다. 특히 현재의 지도자가 어떠한 이유로 강력한 지도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에 계승의 문제는 정권의 위기와 직결되어 왔다. 그리고 그러한 위기는 정치적 숙청을 수반하는 것이 보통이며, 정치적 숙청을 통하여 위기가 표면상으로 극복되기도 했던 것이다.

1954년의 高崗과 饒漱石의 반당행위는 계승이 현실화되지 못한 초기의 계승투쟁이었으며 (Teiwas, 1970:122-135), 그 후 계승의 정치가 현실의 문제로 대두된 것은 1950년대 후반이었다. 그것은 1958년 말 毛澤東이 劉少奇에게 國家主席의 지위를 이양한 것에서 시작된다. 毛가 劉少奇를 國家主席에 앉히고, 스스로 黨務의 제 2 선으로 물러난 것에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던 것이지만 (MacFarquhar, 1983:chap. 9), 그것은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毛의 후계자로서의 劉少奇의 부상이 확실시 된 사건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권력의 분산현상을 자연이 수반한 사건이었다. 1966년 毛가 문화혁명을 일으킨 목적의 하나는 劉少奇를 위시한 소위 “走資派”를 숙청하는 것이었고, 어느 의

미에서 그것은 계승의 정치가 가져온 위기의 해결방안이기도 하였다.

1969년 중국공산당 9전대회에서 毛의 “親密同志”인 林彪가 黨章이 규정하는 毛의 후계자로 선정된 것도 권력의 이양이라는 결과를 가져오지 못하고, 林彪에의한 쿠데타 음모와 그에 뒤따른 林의 집단에 대한 정치적 숙청으로 끝난 사실도 계승의 정치가 낳은 또 하나의 체제의 위기였다(Kav, 1975). 여기서 劉少奇의 실각이나 林彪의 숙청에 관하여 상술할 여유가 없지만, 아무튼 권력 이양에 대한 합리적 절차가 결여된 독재체제에서 최고지도자의 후계가 결정되었다는 사실은 어느 의미에서 최고 지도자의 권위의 취약성을 반영하는 것이고, 특히 후계자로 지명된 제 2 인자가 최고지도자와 불화할 때 계승의 정치는 체제의 위기를 수반한다. 劉少奇와 林彪의 숙청은 毛澤東 생전에 있었던 사건이지만, 毛의 사후에 있어서도 계승의 정치는 그 이전과 유사한 양상을 띠어왔고, 체제의 취약성과 권위의 위기를 초래한 점에서 그 전과 다를 바가 없다.

毛의 사후에 분열된 지도력속에서 잠정적으로 毛의 지위를 승계했던 華國鋒이 鄧小平의 부상으로 실각하고, 鄧의 지지아래 다음 세대의 기수로 발탁되었던 胡耀邦과 趙紫陽이 초기의 예상과 달리 차례로 실각한 것은 후술하는 바와 같이 권력정치의 희생인 동시에 계승의 정치가 가져온 체제위기의 발로였던 것이다.

1. 개인화의 정치

계승의 정치와 연관시켜 볼 때, 가장 두드러진 중국정치의 특색은 정치가 “개인화” 되어 있다는 것이다. 개인화는 제도화에 대비되는 개념이지만, 그것은 배비가 말하는 일종의 家產制(patrimonialism)의 특징을 지닌다는 의미로도 이해된다. 배비에 의하면 순전히 개인적인 행정막료가 발전됨에 따라 전통적인 권위는 家產制의 그것으로 변모된다는 것인데, 이것은 家父長制의 家庭에서의 지배형태가 국가의 영역으로 확대된 형태라는 것이다.⁽²⁾ 家產制 國家에 있어서 지도자는 국가의 관직을 자신의 사유물로 간주하게 되

(2) Max Weber, *The Theory of Social and Economic Organization*, trans. A.M. Henderson and Talcott Parsons (New York: Free Press, 1947), pp. 346-347. Patrimonialism과 비슷한 개념으로 proprietary state란 용어를 쓰는 학자도 있다. 예컨대, Alan P.L. Liu, *How China Is Ruled*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1986), p.9.

고, 따라서 그의 개인적인 영향력이 모든 것을 암도하게 된다.

현대 중국의 정치를 분석함에 있어서 배비가 이해했던 家產制의 개념을 정확하게 원용하기에는 다소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지난 40여 년 동안 중국정권이 당면했던 계승의 정치는 家產制의 정권의 특색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최고 지도자의 말은——그것이 毛의 것이든, 鄧의 것이든——法이며, 최고 지도자에 반대하는 것은 심각한 형벌 혹은 징지어 죽음의 위험까지 수반해 왔다. 사실 정권 수립 이후, 중국공산당은 家產制의 특징을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에 크게 의존하여 왔다. 그것은 첫째 개인의 偶像化에 의하여, 그리고 둘째 제도적인 권력의 분립이 아니라 최고 지도자의 單一制의 지배에 대한 집착을 통해서 발전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표면적인 제도화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지도자들은 지도력 내부의 갈등을 해결하는데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실패하고, 심각한 분열이 야기되었을 때마다 물리적인 힘의 사용을 통하여 그 해결을 모색해 왔다. 문화혁명 당시의 군의 역할이나, 1989년 天安門 사건때의 군의 동원이 바로 그것이었다(Burns, 1989:486).

2. 지도력의 분열

정치권력은 경제에 있어서 화폐와 마찬가지로 희소한 가치이고, 따라서 권력의 추구는 사회의 여러 세력 간의 갈등을 전제로 한다. 공산당이 권력을 독점하는 중국에 있어서, 그것은 체제내부의, 혹은 지도자들의 개인적인 영역에 있어서의 권력투쟁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창당 이후 중국공산당은 10여 차례의 노선투쟁을 경험해 왔고, 그것은 권력투쟁의 외연적인 표출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毛澤東은 일찌기 1958년 反右派鬪爭을 마무리하면서, “黨이 존재하는한, 분열은 가능하다”고 말했었다(*Miscellany of Mao Tse-tung Thought* (1949~1968), 1974:113).

一石支柱의 통제를 최우선의 원리로 삼고 있는 중국공산당은 “意見集團”은 용인하여 왔지만, “파벌집단”은 허용하지 아니 했다(Sharman, 1966:55-57). 그러나 문화혁명의 발발과 더불어 毛澤東은 일종의 “봉당”(clique)——소위 四人幫——을 조직했고, 1966년 그것을 “파벌”(faction)로 발전시켰었다. 그리고 이것은 다시 일종의 “后見・被后見”的 관계(patron-clientalism)로 발전되면서, 중국의 정치는 이러한 파벌 간의 권력투쟁을 심하게 노정시

컸던 것이다.⁽³⁾

이러한 현상은 毛澤東 사후에 있어서도 계속되었다. 특히 毛 사후의 시기에서 있어서 계승의 정치는 “후견·폐후견” 관계의 발전으로 인하여 공식적인 당의 지도자의 지위가 약화된 것에 의하여 영향을 받았었다. 그것은 毛의 지나친 偶像化가 가져온 나쁜 영향때문인데,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지도자들은 공식적인 당의 최고지도자의 지위——중앙위원회의 主席 혹은 당의 總書記——에 큰 권한과 권위를 부여하는 것을 꺼려 했고, 따라서 華國鋒·胡耀邦·趙紫陽의 실각으로 이어진 일련의 계승의 위기는 그리한 상황의 반영이었다.

사실 毛 사후의 중국의 지도력은 1950년대에 비하여 훨씬 심각하게 분열되어 있음이 발견된다. 첫째, 적어도 이데올로기의 측면에서 볼 때, 1950년대에는 당의 공식적인 이데올로기에 대한 합의가 강했음에 반하여, 毛의 사후에 있어서는 비록 “4개의 基本原則”에 대한 합의가 표면상으로는 있다고 해도⁽⁴⁾, 중국에 있어서 마르크스主義의 적실성과 중국 사회주의의 본질에 관하여는 합의가 형성되고 있지 않은 것이다.

둘째, 1950년대에 비해서 毛의 사후에 있어서는 지도자들이 경제정책의 방향과 그 수단에 대하여 또한 심각한 불일치를 보이고 있다. 1950년의 경제적 이슈는 주로 집단화의 속도에 관한 것이었으나, 근자에 와서의 이슈는 중앙 계획과 시장경제사이의 상대적 중요성의 문제와 가격과 임금개혁의 속

(3) Liu, *op. cit.*, chap. 14. Liu는 Lasswell과 Kaplan의 구분에 따라서, 소위 봉당과 파벌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Clique와 faction은 다같이 정책결정 집단의 下位集團이지만, 전자는 보다 비공식적이고, 일시적인 私的인 半集團(demigroup)인 반면에, 후자는 보다 조직적인 성격을 강력하게 지닌다는 것이다. 한편 “후견·폐후견”的 관계는 동등하지 않은 지위, 권력, 자원을 가진 두사람사이의 연합으로서, 특히 봉당이나 파벌의 힘이 지방의 조직으로 확대될 때 현저하게 작용한다는 것이다. Harold D. Lasswell and Abraham Kaplan, *Power and Society: A Framework for Political Inquiry*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63), pp.171-172; Carl H. Lande, “Introduction: The Dyadic Basis of Clientalism,” in Steffen W. Schmidt, Laura Guasti, Carl H. Lande, and James C. Scotts (eds.), *Friends, Followers, and Factions* (Berkeley and Los Angele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77), p.xx, Liu, *op. cit.*, pp.232, 245에서 재인용.

(4) Deng Xiaoping, “Uphold the Four Cardinal Principles,” *Selected Works of Deng Xiaoping (1975~1982)*, (Beijing: Foreign Languages Press, 1984), pp. 166-191 참조. “4개의 基本原則”은 마르크스레닌주의, 毛澤東사상; 공산당의 지배; 인민민주전쟁(專政); 및 사회주의의 길에 대한 고수를 의미한다.

도 및 범위의 문제에 치중되었던 것이다(Sullivan, 1988:198-222).

세째, 중국의 원로지도자들 사이의 갈등은 관료적 분쟁, 지역 간의 긴장, 또 중앙과 지방 간의 불협화에 뿌리박고 있으며, 이것 역시 1950년대 비하여 毛澤東 사후에 훨씬 심각하게 나타났다. 1950년대의 高崗·饒漱石 사건 이후 지방의 당은 보다 집권화의 정책으로 재조직되었지만, 毛澤東 사후에 전개된 경제개혁은 권위의 분권화를 초래했고, 그 결과는 관료, 지역 간 내지는 중앙과 지방의 대립과 반목을 심화시켰던 것이다(Burns, 1989:484-485).

3. 개혁정치의 공과

毛澤東 사후의 중국이 정치개혁과 경제개혁을 추진해 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지만, 그것은 개혁을 추진해온 지도자들의 초기 예상과는 달리 사회주의 정치생활에, 나아가 공산당 일당지배에, 여러가지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옴으로써 체제의 안정성을 위협하게 된 것도 사실이다. 여기서는 그 개혁정치의 내용보다는 그것의 영향을 간단히 살펴 보기로 한다.⁽⁵⁾

毛澤東 사후에 추진되어온 개혁의 정치가 반드시 일관성 있는 정책이었다고 할 수 없지만, 그것은 적어도 다음과 같은 세측면에서 중국사회와 정치에 영향을 미쳐왔다. 첫째, 경제개혁은 어느 의미에서 중국사회를 다원화시킴으로서 계급 내지 집단간의 갈등적인 이해관계를 심화시켰다. 경제개혁은 경제활동에 관한 정책결정을 분산시켰고, 그 결과는 중앙과 지방간의 이해관계의 대립뿐 아니라, 특히 도시에 있어서 1950년대와 유사한 새로운 계급의 분화를 초래하였다(Burns, 1989:486-498). 둘째, 경제개혁은 중국의 공식적인 가치체계의 붕괴를 노정시켰다. 1987년 중국공산당 13전대회에서 趙紫陽이 밝힌 바와 같이 40년의 경제발전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아직도 “사회주의의 초급단계”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인데, 이것은 어느 의미에서 당의 공식적인 이데올로기인 “4개의 基本原則”과 모순되는 것이다. 세째, 특히 鄧小平의 지지아래 趙紫陽이 추진했던 개혁정책은 국가의 정책과정에 있어서 지식인의 역할을 확대시키고, 정책의 집행에 대한 경제적인 인센티브를 강조하고, 대중의 참여에 대한 제도화를 강조함으로써 당과 국가, 국가의

(5) 정치 및 경제개혁의 내용에 관하여는 Harry Harding, *China's Second Revolution: Reform After Mao* (Washington, D.C.: Brookings Institution, 1987) 을 볼 것.

사회와의 관계를 변화시켰던 것이다.⁽⁶⁾

사회주의 체제의 변화는 세계적인 추세이고, 따라서 중국도 그러한 변화를 외면할 수 없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개혁정치가 가져온 부작용은 보수와 개혁세력의 대립을 침에화시킴으로서 계승의 정치에도 시행착오를 거듭하게 했던 것이다.

Ⅲ. 계승정치의 전개

1976년 9월 毛澤東이 사망했을 때, 중국은 혁명전야의 구체제와 흡사했다. 우선 정치적으로 그가 남긴 유산은 심각하게 분열된 공산당의 지도력이었다. 그 해 9월 후계자들에게 그가 남긴 정치·경제체제는 긴장과 분열의 조짐을 안고 있는 것이었으며, 공업부문도 일부의 국방산업을 제외하고는 비효율의 전형이었다. 폭력적인 사태가 유발할 가능성도 커졌다. 이러한 배경 가운데 1976년 10월부터 1979년 1월 사이에 당지도력 내부에는 권력투쟁이 계속되었으며, 그 결과는 당의 실용주의적인 개혁세력의 부상이었다.

1. 華國鋒의 浮枕과 鄧小平

毛사후의 권력투쟁에는 적어도 다섯 개의 파벌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 가운데 세 파벌은 비록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毛의 이데올로기와 정책을 지지하는 세력이었다. 하나는 소위 “四人幫”이고, 들은 고참의 당간부인데, 이들의 대부분은 省의 당간부 혹은 지방군구의 사령관들로서 문화혁명의 와중 혹은 그 이후에 毛澤東에 의하여 중앙으로 발탁된 지도자들이었다. 이들의 대표는 華國鋒과 汪東興, 陳錫聯, 吳德 등이었다. 세째는 당의 원로간부들로서 葉劍英, 李先念 등으로 대표된다. 물론 이 세 집단 가운데 毛의 이데올로기와 정책에 가장 가까운 집단이 四人幫이었고, 또 그들은 문화혁명의 수혜자였기 때문에 문화혁명의 피해자들로부터 공격을 감수해야 할 입장에 있었던 것이다. 또 毛와 가장 적게 동일시되던 집단은 세번째 집단인 당의 원로간부였다. 그런데 이들 세 집단은 다음의 두 고참간부집단에 의하여 도전을 받게 되었는데, 하나는 1956년 이후 문화혁명의 종식에 이르기까지 계

(6) 정치개혁이 초래한 당과 국가, 국가와 사회와의 관계의 변화에 관한 상세한 분석은 Burns, *op. cit.*, pp. 498-517.

속해서 탄압을 받았던 黨의 實用主義的 集團이며, 다른 하나는 문화혁명 당시 소위 “走資派”로 낙인찍혔던 간부들이 있다. 이 마지막 집단은 數의 으로 가장 우세하였으며, 또 당의 기구를 오랫동안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권력투쟁에 있어서 그들의 잠재력이 가장 커졌다고 할 수 있다. 사실 毛도 이들의 대다수를 1969년 이후에 복권시켰던 것이며, 그들의 입장은 문화혁명 이전의 복귀를 희망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毛의 사후 이들의 우선적인 과제는 四人幫을 당에서 축출하는 것이다.⁽⁷⁾

四人幫의 축출은 毛의 측근을 형성했던 원로간부와 고참간부들의 공통적인 목표이기도 했다. 이 두 집단은 그들의 정치적 생명이 四人幫의 숙청에 달렸다고 판단했던 것이다. 물론 그것은 당의 實用主義者들의 목표이기도 했다. 1976년 10월 당시 국방부장이던 葉劍英은 華國鋒과 협력하여 四人幫의 체포를 명령했고, 이로서 표면적으로는 華國鋒의 시대가 오게 된 것이다.

華國鋒은 毛와 동향인 湖南省의 당간부로서 문화혁명 당시까지는 중앙에서 크게 각광을 받지 못했다. 그가 毛의 주의를 끈 것은 1959년 廬山회의를 전후해서라지만(Oksenberg and Sai-Cheung, 1949~1966:3-53), 당의 중앙위원회를 발탁된 것은 1969년 제 9전대회에서 였고, 1971년에 잠시 國務院에서 일한 적은 있으나, 곧 湖南省黨委의 서기장에 임명되었다고 한다. 물론 1971년 북경에서의 그의 활약이 北京으로의 재진출의 발판이 되었다고 할 수 있겠지만, 여기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 것은 그가 1971년의 林彪사건을 조사하기 위하여 구성된 특별조사위원회의 일원으로 활약한 공로 때문이며, 아무튼 그는 1973년에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원에 임명되었다. 1974년 公安部長에 기용된 華는 중요한 권력지위에서 그 능력을 발휘하기 시작했고, 公安업무에서 뿐 아니라, 농업·상업·재정의 부문에서도 유능한 행정가로 인정받게 되었다는 것이다. 사실 1975년에 그가 행한 농업정책에 대한 연설은 농업의 현대화에 대한 그의 입장을 제시한 것이었고 (Hua, 1975:7-10), 중국의 경제발전에 관한 당시 수상이던 周恩來의 견해를 뒷받침하는 것이었다고 한다.

1976년 1월 周恩來가 사망하자, 수상의 지위를 승계한 華는 四人幫을 축

(7) Liu, *op. cit.*, p.53. 또 약간 다른 시각에서 당시의 파벌에 대한 분석은 Dorothy Grouse Fontana, “Background to the Fall of Hua Guofeng,” *Asian Survey*, Vol. 22 (March, 1982), pp.237-243을 참조할 것.

출한후 당중앙위 主席職에 오르게 되었다. 毛가 周恩來의 사망직후 그의 후임으로 華를 격상시킨것은 당내의 파벌간의 세력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것 이었으며, 華가 그 해 10월 당주석의 지위에 오른 것은 당원 元老간부들과 일부 軍部세력의 지지를 받았기 때문이다.⁽⁸⁾

華는 중앙에서의 간부들의 지지뿐 아니라, 폭넓은 지지기반을 확대하려고 노력했다. 우선 大衆들에게는 문화혁명의 방법이 되풀이되지 않을 것임을 확신시켰고, 농민들의 경제활동에 대한 제약등을 완화시켰다. 이러한 일련의 정책외에도 華는 이론가로서의 자신의 카리스마를 구축하기 위하여 毛의 『選集』 제5권을 편찬하기도 했다. 그러나 華의 부상이 결코 계승의 문제를 해결한 것도 아니었고, 따라서 정치적 안정을 가져온 것도 아니었다. 왜냐하면 華의 부상은 華를 지지하던 세력들이 해답할 수 없었던 많은 사회·경제적 문제들이 그대로 남은 상태에서의 권력변동이었기 때문이다.

자신의 지위강화에 대한 華의 노력이 초기에는 성공적으로 보였지만, 거기에는 여러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파벌간의 반목이었고, 특히 문화혁명의 피해집단이었던 “走資派” 혹은 “黨權派”로 지목되던 세력의 도전이 시작되었던 것이다. 이 집단의 대표는 말할 것도 없이 鄧小平이었다.

鄧小平은 문화혁명의 발발전까지 당의 총서기로서 劉少奇와 더불어 黨權을 대표하던 人物이다. 문화혁명이 시작되면서 실각했던 그는 1973년 毛澤東에 의하여 복권되었으나, 1976년 4월 周恩來를 추모하는 天安門사건과 관련되어 당내외의 일체의 직무를 박탈당했었다.⁽⁹⁾

이와같은 鄧의 재차의 실각에는 물론 毛의 승인이 중요하게 작용했다고 생각되지만, 그것은 일부 당의 고참간부들의 반발을 불러 일으켰고, 鄧자신도 廣東軍區의 司令員인 許世友와 廣東省 당위의 제1書記인 章國清의 신변 보호를 받았다는 것이다(Teiwes, 1984).

毛의 사망후 대부분의 당의 원로·고참간부들은 鄧小平에게 가해진 일련의 박해가 부당하다고 느꼈음은 틀림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또 문화혁명의

(8) 일부의 관측에 의하면, 華國鋒은 李先念등의 소위 “石油派”, 毛의 정책이면 무엇이든 옳다면 “凡是派” 및 葉劍英의 軍部세력의 지지가 절대적이었다고 하며, 또한 毛가 華에의 權力이 양을 지지하는 文書를 남겼다는 說도 있다.

(9) 鄧은 1975년 1월 당 제10기 2중전회에서 정치국 부주석이 되었었다.

수혜자인 간부들은 鄧의 복권에 반대하는 입장이었고, 이것은 天安門사건을 전후하여 “汎是”를 표방하던 세력들의 자연스러운 입장이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四人幫의 숙청이후 권력투쟁의 양상은 점차로 鄧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전전되었던 것이다. 여기에는 몇가지 이유가 작용했다. 첫째, 카리스마적 지도자인 毛澤東의 사망이 가져온 혼란과 불확실성이 있었으며, 둘째, 문화혁명이 남긴 정치적 位階와 제도적 경계의 유동성이 중국정치의 큰 변수로 등장했기 때문이다. 사실 毛의 사후에 華國鋒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당의 기율은 점차로 이완되었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의 원로간부들은 비록 예컨대 정치국과 같은 공식적인 기구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黨의 노선을 결정해야 된다고 느끼기 시작했던 것이다(Ferdinand, 1985:199). 말하자면 정치국이나 중앙위원회와 같은 “공식적” 기구보다는 보다 “비공식적” 회합에서의 논의가 점차로 정책과정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이것은 정치가 제도에 의존하기 보다는 개인적인 영향력에 의존해온 중국적 특성의 결과로 볼 수 있다. 이것과 연관시켜 볼 때 특히 중요한 결정은 1977년 3월에 소집된 중앙위원회의 “工作會議”였다고 한다. 여기서 물론 華國鋒은 “兩個汎是”的 원칙을 고수하려 하였지만, 鄧의 복권을 희망하던 간부들의 강한 저항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며, 그들 가운데는 특히 陳雲(당시 全國人民代表大會 常務委의 부위원장)과 王震(당시 국무원 부총리)의 역할이 중요했다는 것이다. 이 두 사람은 물론 정치국원이 아니었다. 工作會議 직후 鄧은 毛思想을 지지하겠다는 의견서를 중앙위원회에 제출했고, 그해 7월 당 제10기 3중전회에서 鄧은 중앙위 부주석, 정치국 상무위 위원, 당 중앙군사위 부주석, 국무원 부총리, 인민해방군 총참모장으로 그 지위가 복권되었다(Ferdinand, 1985:200).

2. 鄧파 三頭體制의 성립

당·정부·군의 요직으로 일단 복귀한 鄧小平은 자신의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일련의 조치들을 취하기 시작하였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의 개혁 프로그램이고, 그것은 일차적으로 신속한 경제성장을 목표로 한 것이지만, 그 목표를 성취하기 위하여 그는 자신의 프로그램에 반대하는 세력들을 당의 요직에서 축출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것은 그렇게 용이한 작업은 아니었다. 그는 우선 자신의 지지기반을 확보하기 위하여 당내의 경

쟁세력에 대한 공격을 유보하고, 관료계층의 지지에 역점을 두었다. 어느 의미에서 그가 경제 및 군사의 근대화 프로그램을 추진한 이면에는 관료계 층의 지지를 획득하기 위한 전략이 있었으며⁽¹⁰⁾, 또한 그것은 毛澤東의 이데올로기를 약화시키기 위한 전략이었다. 그는 또 지식인의 지지를 얻기 위하여 과거에 右翼機會主義者로 낙인이 찍혔던 많은 지식인들을 복권시켰으며, 10년 이상 시행되지 않던 대학입시제도를 부활시켰다. 이것은 말썽 많던 청년계층을 무마하기 위한 작업이었다. 뿐만 아니라 鄧은 中華人民政治協商會議를 소집함으로써 연합전선조직을 부활시켰고, 工人會·청년단·부녀회 등의 당 하부구조를 재정비했으며, 또한 民兵을 재조직하였다. 이와같은 조치들로서 鄧은 1978년 7월 당내외의 지지세력을 규합하는데 성공했고, 곧 이어 이해 12월에 소집된 당 제11기 3중전회에서 전반적인 개혁 프로그램을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여기서 과거의 당의 지도이념이었던 계급투쟁은 4개 현대화개혁으로 완전히 대체되게 되었다.

제11기 3중전회는 당의 인사에도 중요한 변동이 있었으니, 30명이 넘는 華國鋒을 지지하던 위원들이 중앙위원회에서 축출되었으며, 오랫동안 鄧의 피후견인이던 胡耀邦이 신설된 당의 중앙서기처의 비서장, 당 중앙기율검사 위원회의 제3서기로서 발탁되었다. 물론 鄧의 세력이 소위 “汎是派”的 저항을 받지 않은 것은 아니었으나, 이들은 鄧의 조직력, 당내의 위신 혹은 대중의 지지에 대항할 수 없었고, 소위 “新四人幫”으로 알려진 汪東興·紀登奎·吳德·陳錫聯 등의 “汎是派”는 1979년 2월 제11기 5중전회에서 당권을 박탈당하게 되었다. 이제 華의 퇴진만이 시간을 재개 되기에 이르렀다.

당 제11기 3중전회에 이르기까지 중국의 계승정치는 鄧小平과 華國鋒의 권력투쟁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鄧이 승리한 것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이유에서 기인한다. 첫째, 개인적인 파벌의 영향력에서 鄧이 우세했기 때문이다. 1977년 복권이후 1981년 당중앙군사위의 주석직에 임명되기까지 鄧은 黨·政·軍의 어디에서도 최고의 지위를 보유하지 않았었다. 그러나 그의 개인적인 위세와 인간관계는 華의 그것을 압도하고도 남았다. 대부분의 鄧의 지지세력은 복권된 간부들이었다. 이에 반하여 華는 비록 黨·政·軍의 최고지위를 보유했다고는 하나 다른 지도자과의 개인적인 관계에 있어서 鄧과 대결할 수 없었던 것이다. 華의 등장자체가 비록 毛澤東의 지지에

(10) 여기에는 특히 省黨委의 재정비가 중요하다. Fontana, *op. cit.*, pp.249-251.

의한 것이라고는 하나, 毛의 사후 그가 최고의 지위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여러 세력 간의 타협의 산물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華는 鄧을 배제할 수 없었으나, 그것은 華가 형성했던 최초의 연합내에 鄧小平의 지지세력이 있었던 까닭이다. 둘째, 華가 이루었던 연합자체가 불안정한 것이었다. 왜냐하면 보다 실용주의적인 華의 지지자들은 鄧의 지도력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믿었으며, 汎是를 표방하던 지지자들은 보다 방어적인 소수였기 때문이다. 물론 鄧과 華의 권력투쟁을 반드시 개인적인 파벌간의 투쟁으로만 볼 수는 없을지도 모른다. 華의 정치적 입장은 毛澤東主義와 現代화의 중간에 위치하였다고 할 수도 있다. 그는 문화혁명을 찬양하면서도, 한편으로 “四個現代化”的 “새로운 시대”的 기수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문혁의 후유증은 鄧小平을 左傾세력에 반대하는 전국적인 상징으로 부각시켰다. 요컨대, 汎是와 實踐이라는 대립적인 정책과 이념속에서 후자에 대한 지지가 우세했다는 것은 계승정치의 또 다른 측면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Townsend and Womack, 1986:328-329).

1981년 6월 당 제11기 6중전회에서 華國鋒은 당주석 및 중앙군사위 주석직에서 퇴직하고, 전자는 胡耀邦, 후자는 鄧小平에게 돌아갔다.⁽¹¹⁾ 이 회의에서 鄧의 또 다른 피후견인인 趙紫陽은 당의 부주석으로 발탁되었으며, 이에 앞서 1980년 9월 趙는 華의 국무원 총리직을 이미 승계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로서 黨은 胡, 政은 趙, 軍은 鄧이 각기 최고의 지위를 갖게 되었으며, 개혁세력의 3頭體制에 의한 지도력이 중국을 지배하게 되었던 것이다.

3. 胡耀邦과 趙紫陽의 失脚

湖南省 출신의 胡耀邦(1915~1987)은 이미 13세 때 홍군에 참가, “紅小鬼”로서 兒童團에서 활약하다가 長征에도 참여한 고참간부였다. 장정후 延安의 抗日軍政大學에서 수학한 그는 제 2 야전군에서 정치공작을 담당했고, 그 때 鄧小平의 인정을 받았다고 한다. 1952년부터 문화혁명전까지 新民主主義青年團 중앙서기, 共青團 중앙 제 1 서기로서 주로 청년운동을 지도하였다고 한다. 문화혁명 당시는 반혁명수정주의자로서 비판을 받고 실각하였다가 1972년에 부활, 과학원 부원장으로서 鄧小平을 도왔었다. 1976년 天安門사건 때

(11) 1982년 9월 당 제12전대회는 당중앙위 주석제도를 폐지하고, 총서기제를 신설하였으며, 총서기에는 胡耀邦이 선임되었다. 총서기가 이제 黨을 대표한다.

제자 실각하였다가 이듬해 다시 복권되고, 중앙당학교 부교장, 중앙조직부장, 중앙선전부장을 역임했었다. 鄧小平을 중심으로 한 개혁세력의 부상으로 胡가 華國鋒의 후임으로 당주석, 당총서기직을 맡게되었다 함은 앞서 언급했었다(Shu, 1982:801-822).

한편 趙紫陽(1919~)은 河南省 출신으로 일찍부터 共青團에서 활약하였으나, 共產黨에 입당한 것은 장정후였다. 1951년 이후 廣東省에서 토지개혁을 담당, 同省黨委의 제 1서기로서 활동중에 문혁을 맞아 실각했다고 한다. 그러나 1971년 內蒙古自治區黨委의 서기로 복권, 1973년 제10기 당중앙 위원으로 피선됨과 동시에 다시 廣東省黨委의 제 1서기로 전출되었다가, 1975년 鄧小平의 의뢰에 따라 四川省黨委의 제 1서기가 되었다. 그는 여기서 生產責任制 등을 채택하여 큰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려졌고, 그러한 행정공로를 인정받게 되어 1977년 정치국 위원후보, 1979년 同委員, 1980년 同常務委員, 이해 9월에 총리로 승진하게 되었으며, 胡耀邦과 더불어 개혁파의 기수로서 鄧小平의 일익을 담당하게 되었다. 후술하는 바와 같이 1987년 1월 胡耀邦의 돌연한 사임으로 黨의 總書記 대리직을 맡았으나, 1989년 天安門事件 이후 총서기직에서 해임되었다.

趙紫陽은 유능한 행정가이자 개혁파였고, 胡耀邦은 여러 해동안 鄧小平의 親密同志였던 만큼, 그들의 실각은 이외의 사건들이었다. 물론 胡와 趵의 실각에는 상이한 변수들이 작용했기 때문에 동일한 차원에서 설명하기는 어려울지 모르나, 위의 예비적 고찰에서 지적한 바와같이 그들 양자는 모두 계승의 정치의 희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1982년의 당 제12전 대회는 胡와 趵를 鄧의 후계자로서 인준함으로써 지도력의 세대교체를 과시하고, 개혁과 개방의 정책을 확인한 대회였다. 이 대회에서 胡가 발표한 정치보고는 상당히 신중한 문서였다.⁽¹²⁾ 그것은 계획경제를 다소 완화시킨 정책의 표방이었으며, 1984년 10월의 제12기 3중전회에서 개진된 도시산업부문의 전면적인 개혁을 예상한 것은 아니었다. 물론 1978년 제11기 3중전회의 경제개혁정책이 주로 농업부문의 통제를 借地조정에 의한 개인책임제로 바꾼 것인 반면에, 胡의 개혁정책은 도시산업부문에서의 개혁에 역점을 둔 것이었다. 그러나 그후 추진된 농업과 공업부문의

(12) 제12전 대회에서의 胡의 정치보고는 *Beijing Review*, September 13, 1982, pp. 11-48 을 볼 것.

개혁이 급속한 경제성장을 가져오기는 하였지만, 소유제의 개혁이냐, 한 걸음 더 나간 시장경제의 추구냐는 문제를 둘러싸고 지도자들의 분열이 심화되었다는 것이다(Dittmer, 1989:3).

1987년 1월 胡의 돌연한 실각 이후 중국에서는 “부르조아 自由化”에 반대하는 운동이 대대적으로 전개되었다. 돌이켜 보면, 胡의 개혁조치는 경제에 국한된 것은 아니었고, 오히려 정치개혁에 대한 그의 입장이 보다 그의 실각에 영향을 준 것인지도 모른다. 정치개혁에 대한 胡의 구상은 중국이 문화혁명과 같은 과격한 정책을 결코 다시 경험해서는 안된다는 전제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그는 중국공산당이 외부의 도전과 비판을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물론 그의 구상이 공산당과 다른 정당사이의 권력의 순환까지 고려하는 과격한 것은 아니었지만, 당의 전국대표대회의 역할개혁과 기타 非黨組織의 자율성보장 등을 주장하는 광범한 것이었다. 그는 지식인의 지지를 받았지만, 당보수세력의 비판을 면하지 못했다(Chang, 1987:30~42; Bachman, 1989:73~106). 다만 그가 1987년 1월 총서기직에서 해임된 후에도 그는 정치국원의 지위를 보유하고 있었다. 1989년 4월 그의 죽음은 학생들의 테모를 유발시켰다.

1987년 9월의 당 제13전대회는 개혁에 박차를 가한 대회였다. 이 대회의 주역은 趙紫陽이었고, 경제개혁에 대한 공식적인 이념적 정당화는 “사회주의 초급단계”이론이었다. 이것은 중국과 같이 “생산력이 낙후되고 상품경제가 발달하지 못한 조건아래서 사회주의를 건설해 나가는 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특정의 단계를 지칭”하는 것이다. 이 단계에서 당과 국가의 과제는 자본주의 국가가 실현한 공업화와 생산의 상품화, 사회화, 현대화를 달성하는 것이며,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기 위한 정치·경제·문화적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사회주의의 초급단계이론이 등장하기 이전, 개혁에 대한 이념적 기초는 “公有制에 기초한 계획상품경제”였다. 1984년에 채택된 이 이론은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시장 메카니즘이 운용되며, 경제는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존중해야하며, 계획은 소련식의 통제경제계획의 방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케인즈 학파가 주장하는 거시경제적 방법을 통해서 행사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 (Delfs, 1987:50). 그러나 자본주의적 실천이 사회주의 건설을 위하여 허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보수적인 마르크스주의자들에게는 금기사항이 있고,

따라서 그것은 보수파의 이론적 공격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사회주의의 정의문제와 마르크스 이론의 해석 문제는 매우 중요한 정치적 도전이 되었었다. 물론 사회주의의 초급단계이론이 趙紫陽의 독창물은 아니지만, 그의 보고는 개혁이 같은 이념적 딜레마에 대한 대안적 해결책이었다고 생각된다. 사회주의 사회의 본질적 속성은 공산당의 계속적인 지배, 중요한 생산수단의 공유, 계획경제, 계급없는 사회라는 마르크스·레닌주의의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다. 趙의 보고도 중국이 그러한 속성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광범한 틀속에서지만, 趙의 사회주의 초급단계론은 상당한 유연성과 실험과 실용주의를 허용했던 것이며, 보수세력의 이념적 반대를 배제하기 어려운 것이었다(최명, 1988).

한편 제13전 대회에서 구성된 새로운 당 지도력도 매우 주목할 만한 것이었다. 鄧小平을 위시한 고참원로 혁명간부들이 대거 당무의 제2선으로 물러나고, 趵紫陽이 총서기직에 선출되었다. 또 여기서 구성된 정치국 상무위에는 趶를 제외한 4명 모두가 새로운 선출이었다.⁽¹³⁾ 제13기의 정치국원과 정치국 상무위원은 보다 개혁추진적인 지도자와 다소 신중한 지도자들의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할 것이며, 개혁에 대한 공공연한 비판세력은 배제되었다. 胡耀邦의 실각 이후 개혁세력이 당면했던 문제들을 고려한다면, 제13전 대회의 인사변동은 괄목할 것이었고, 鄧小平의 후계에 대한 단호한 준비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89년 6월 天安門사건 직후, 제13전 대회의 설계자였던 趵紫陽은 실각하고, 上海시장이었던 江澤민이 그 후임으로 선출되었던 것이다. 돌이켜 보면, 趵紫陽의 실각의 직접적인 원인은 天安門광장에서의 학생들의 시위를 적절하게 처리하지 못한 것에 있다. 그러나 우리는 당지도력내부에 존재하던 정책상의 긴장을 간과할 수 없다. 또 개혁정책과 정권의 정치적 탄압사이에서 발생했던 모순을 간과해서도 안될 것이다. 개혁파들은 정치 및 경제개혁이 우선시되어야한다고 생각했지만, 거기에는 그것이 당지도력을 약화시켜서는 안된다는 한계가 있었던 것이다.

이미 1988년 말에 이르러 강력한 反改革的 분위기가 팽배하기 시작했다.

(13) 趵는 胡耀邦의 실각이후 총서기 대리였다. 또 새로이 선출된 4명의 정치국 상무위원은 李鵬, 喬石, 姚依林등 3명의 부총리와 서기처의 서기장인 胡啟立이었다. 胡啟立은 당의 조직과 공안업무에 오래 종사했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 첫째, 1988년 봄 趙紫陽이 소매 물가개혁을 주도했을 때 채택된 보다 적극적인 市場化의 조치는 공산당 집권이후 미증유의 인플레이션과 부패를 가져 왔던 것이다. 많은 원로 당간부들은 가격의 자유화와 국가소유의 기업을 민간인에게 파는 것과 같은 “異端的”인 조치를 趙紫陽이 취했을 때, 그것이 위험하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들은 趙의 조치가 지나치게 성급하다고 믿었던 것이다(Kristof, 1989:41).

둘째, 경제면에서 난관에 봉착했던 개혁세력은 정치면에서 반격을 시도했었다. 1988년 12월 개혁파의 지식인들은 1978년 12월 3중전회의 10주기를 기념하기 위한 세미나를 조직했었다. 그것은 “정신적 오염”과 “부르조아 自由化”를 비판하던 보수파의 운동을 공격하기 위한 것이었다. 1989년 봄 그들은 중국사회의 자유화와 정치의 민주화를 요구하면서 人權문제에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이 보수파들을 다시 자극하였는데, 이것이 4월 胡耀邦이 사망했을 당시에 趙가 치해 있던 상황이었다(Kristof, 1989:41). 위에서도 언급한 바와같이, 지도자들 사이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결여된 중국에서, 그 해결의 방안은 軍을 동원하는 것이 외에는 다른 대안은 있을 수 없으며, 그 결과가 주지하다시피 天安門 학살로 나타난 것이다. 그리고 趙는 그 희생양이었다.

IV. 불안정한 계승의 정치

1989년 6월 말 제13전 4중전회에서 선출된 새로운 黨의 지도자들을 일별 해보면, 그것은 원로지도자들 사이의 타협의 산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부의 관측에 의하면, 趵紫陽의 후임으로 陳雲은 姚依林을 추천했고, 彭真은 喬石을 지명했다는 것이다. 이 난국은 鄧小平이 上海市黨委의 제1서기였던 江擇民을 지명함으로서 타결되었다. 江은 개혁정책이 득세할 당시에 그 지지자였으나, 上海의 민주화운동에 대하여는 강경한 입장은 취했다고 한다. 1950년대에 소련에 유학한 江은 李鵬과 李先念과 특히 가깝다고 한다(Dittmer, 1989:13).

4중전회는 또 胡啓立을 정치국 상무위에서 축출했다. 趵紫陽과 胡啓立이 탈락함과 동시에 江擇民, 宋平, 李瑞環이 상무위원이 되었다. 이들은 李鵬, 喬石, 姚依林과 더불어 6人の 정치국 상무위를 구성하게 되었는데, 宋은 당

의 조직책으로서 陳雲의 폐후견이 있고, 李瑞環은 天津시장이 있는데, 萬里의 후광으로 상무위에 진출할 수 있었다고 한다. 말할 것도 없이 宋과 李가 天安門사건이후에 있었던 지도력 개편에 있어서 최대의 수혜자인 것이다.

趙의 실각과 그 후에 전개된 당지도부의 개편과정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중국정치의 특성을 발견할 수 있다. 과거에도 그랬지만, 당의 원로간부들이 정치국원의 충원에 있어서 자신들의 후계자들을 지명하는 권한을 행사했다는 것이다. 공식적인 黨職에서 물려난 후에도 당의 원로들은 그들의 고참권과 경험의 이점을 이용하여 결정적인 이슈에 개입하여 왔다. 여기서 우리가 지적하여야 할 것은 중국에서 지도자의 계승은 “系統”에 의하여 좌우 된다는 것이다.

중국공산당 지도력에는 두 개의 “系統”이 존재하여 왔다. 하나의 계통은 당의 일상적인 업무를 관장하는 간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른 계통은 주요한 정책과 전략적 이슈에만 개입하는 제2선의 지도자들로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전통은 이미 1950년대에 毛澤東에 의하여 조성된 것으로서, 大躍進직후 毛가 黨務의 제2선으로 물려남에 따라서 劉少奇와 鄧小平이 제1선의 당무를 관장하게 되었고, 자신은 家父長의인 地位를 보유했을 때였다. 1980년 이후 鄧小平의 행동도 이와 유사하다. 1989년 말 鄧이 江擇民에게 黨의 中央軍事委의 주석직을 물려줄 때까지 공식적인 당의 지위에서 하나씩 물려나면서, 먼저 胡耀邦과 趙紫陽, 그 다음 趙紫陽과 李鵬, 그리고 그 다음 다시 江擇民과 李鵬에게 제1선의 임무를 링김으로서 그들의 지지 기반을 확대하도록 하였었다. 그러나 이러한 관행이 갖는 결함은 분명하다. 최고의 지도자인 毛와 鄧은 결코 실질적인 권위에서 물려난 것이 아니라 중요한 정책결정과 집행에 있어서는 항상 개입하여 왔다는 것이다. 따라서 두 계통의 분립은 항상 마찰의 원인이 되어 있는 것이다. 제1선의 지도자는 강력한 제2선의 지도자를 만족시키기 어려울 뿐 아니라, 최고지도자의 그늘에서 행동하여야 한다는 심리적인 부담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제1선의 지도자가 제2선의 지도자와의 개인적인 관계와 충성심에 의거하여 충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제2선 지도자에 의한 정책개입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 들이지 않기 때문이다(Wilson and Li, 1990:28-29).

더구나 후계자로 지명된 지도자가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하여는 어느 의미에서 최고지도자(제2선의 지도자)의 신뢰를 유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후계자는 최고 지도자의 자원과 권위를 결여하고 있기 때문에, 최고지도자의 사망에 대비하여 그의 후광으로부터 독립한 자신의 권력기반을 조성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최고 지도자의 신뢰를 받는 것과 그로부터 독립된 권력기반의 발전사이에는 딜레마가 존재하는 것이다. 이것은 권력계승의 제도적인 장치가 결여된 중국의 실천에서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며, 따라서 계승의 정치는 항상 체제의 불안정을 수반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胡耀邦과 趙紫陽의 실각의 경우에 더욱 헌저하게 나타난 중국정치의 특색은 비록 鄧이 최고의 지도자라고는 하나 그가 毛澤東이 향유했던 개인적인 권위와 정치권력을 구사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어느 의미에서 그는 당내의 고참원로들과 지도력을 나누어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989년의 위기는 鄧이 고참원로들의 계속적인 지지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발생했던 것이며, 그러한 의미에서 鄧은 동등한 지도자들 가운데 제 1 인자에 불과한 것이다. 그렇다면 오늘날 중국에는 제 2 선의 지도자가 복수로 존재하는 것이며, 그 제 2 선의 지도자들은 보수적인 원로간부들로서 구성된 일종의 막후 내각인 것이다. 그들은 汎是派와의 투쟁에서는 鄧의 연합세력이었지만, 점차로 鄧의 改革정책과 후계조치에 반대했었다(Far Eastern Economic Review, 1989:10).

요컨대, 중국의 정치제도는 그것이 당면해 온 거대한 사회·정치·경제적 도전에 합리적으로 대처한 능력이 있는 당의 권위를 충분히 제도화하는데 실패하였고, 따라서 계승의 정치는 체제의 불안정을 반영해 온 것이다.

참 고 문 헌

최 명

1988 “中共 13全 이후의 개혁정책과 權力構造,” 제 3 차 韓·日 東아시아 情勢研究
會議.

Bachman, D.

1989 “Institutions, Factions, Conservatism, and Leadership in China: The Case of Hu Yaobang,” in Raymond C. Taras (ed.), *Leadership Change in Communist States*. Boston: Unwin Hyman.

Burns, J.P.

1989 “China’s Governance: Political Reform in a Turbulent Environment,” *The China Quarterly*. No. 119.

- Chang, P.H.
1987 "China after Deng: Toward the 13th CCP Congress," *The Problems of Communism*. Vol. 36.
- Delfs, R.
1987 "China: Ideological Inconsistencies," *Far Eastern Economic Review*.
- Deng Xiaoping
1984 "Uphold the Four Cardinal Principles," *Selected Works of Deng Xiaoping (1975~1982)*. Beijing: Foreign Languages Press.
- Dittmer, L.
1989 "The Tiananmen Massacre," *Problems of Communism*. Vol. 38.
- Dreyer, J.T.
1989 "The People's Liberation Army and the Power Struggle of 1989," *Problems of Communism*. Vol. 38.
- Ferdinand, P.
1985 "China," in Matin McCauley and Stephen Carter eds., *Leadership and Succession in the Soviet Union, Eastern Europe and China*. Armonk, N.Y.: M.E. Sharpe.
- Harding, H.
1987 *China's Second Revolution: Reform After Mao*. Washington, D.C.: Brookings Institution.
- Hua Kuo-feng
1975 "Build Tachai-Type Counties Through the Country," *Peking Review*. Vol. 44.
- Huan Guocang
1989 "The Events of Tiananmen Square," *Orbis*.
- Kav, M.Y.M. (ed.)
1975 *The Lin Biao Affair: Power Politics and Military Camp*, White Plains. N.Y.: International Arts and Sciences Press.
- Kristof, N.D.
1989 "China Update: How the Hardliners Won," *The New York Times Magazine*.
- Lande, C.H.
1977 "Introduction: The Dyadic Basis of Clientalism," in Steffen W. Schmidt, Laura Guasti, Carl H. Lande, and James C. Scotts eds., *Friends, Followers, and Factions*. Berkeley and Los Angele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Lassell, H.D. and A. Kaplan
1963 *Power and Society: A Framework for Political Inquiry*.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Liu, A.P.L.
1986 *How China Is Ruled*.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1990 "Aspects of Beijing's Crisis Management: The Tiananmen Square Demonstration," *Asian Survey*. Vol. 30.
- MacFarquhar, R.
 1983 *The Great Leap Forward, 1958~1960*.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Nathan, A.J.
 1989 "Chinese Democracy in 1989: Continuity and Change," *Problems of Communism*.
- Oksenberg, M. and Sai-Cheung Yeung
 1977 "Hua Kuo-feng's Pre-Cultural Revolution Hunan Years, 1949~1966: The Making of a Political Generalist," *The China Quarterly*. No. 69.
- Scharmann, F.
 1966 *Ideology and Organization in Communist China*. Berkely and Los Angele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Shu-Shin Wang
 1982 "Hu Yaohang: New Chairman of Chinese Communist Party," *The Asian Survey*. Vol. 22.
- Sullivan, L.R.
 1988 "Assault on the Reforms: Conservative Criticism of Political and Economic Liberalization in China," *The China Quarterly*. No. 114.
- Teiwes, F.C.
 1970 "The Evolution of Leadership Purges in Communist China," *The China Quarterly*. No. 41.
- 1984 *Leadership, Legitimacy, and Conflict in China*. London: Macmillan.
- Townsend, J.R. and B. Womack
 1986 *Politics in China*. 3rd ed., Boston: Little, Brown.
- Walder, A.G.
 1989 "The Political Sociology of the Beijing Upheaval of 1989," *Problems of Communism*.
- Weber, M.
 1947 *The Theory of Social and Economic Organization*. trans. A.M. Henderson and Talcott Parsons, New York: Free Press.
- Wilson, I. and Y. Li
 1990 "Leadership by 'Lines': China's Unresolved Succession," *The Problems of Communism*. Vol. 39.
- Miscellany of Mao Tse-tung Thought(1949~1968), Part I*, Arlington Va.: Joint Publications Research Service, 1974.